

김덕준(金德俊)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 실천원리를 통해 본 현재의 한국 사회복지 교육

Examining Present Korean Social Welfare Educati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Ideology & Social Welfare Education Practice Theory of
Deok Joon Kim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Jun-Woo Lee(knudeaf@kangnam.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복지 교육의 선구자이면서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 독립학과를 설립한 김덕준(1919-1992)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를 고찰하는 데에 있다. 김덕준의 생애와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적 그리고 그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를 살펴본 결과, 첫째, 샬롬의 정신, 둘째, 인간의 존엄성, 셋째, 십자가 사랑, 넷째, 사회정의, 다섯째, 경천애인, 여섯째, 이웃 사랑의 관계성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는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적이며 이념적인 사회복지사 양성의 본질적인 목적과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는 통찰들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에 적용하면, 사회복지사의 정의와 자세, 역할,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 중심어 : | 김덕준 | 사회복지 사상 | 사회복지 교육 실천원리 | 기독교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ocial welfare ideology and social welfare education practice theory of Deok Joon Kim(1919-1992) who was a pioneer in Korean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a founder of Korea's very first indepen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rough examining his life, and social welfare related works, ideology and education practice theory following conclusions were derived. Relationship involving first, spirit of shalom, second, human dignity, third, love of the cross, fourth, social justice, fifth, worshiping God and loving human being, and sixth, love of neighbors were found. These social welfare ideology and social welfare education practice theory of Deok Joon Kim are values that can resolve today's Korean social welfare education problems and insights which would reestablish essential goals and objectives in cultivating social workers with principles. These could be applied to Korean social welfare education in forms involving social worker's justice, stance, role, and function.

■ keyword : | Deok Joon Kim | Social Welfare Ideology | Social Welfare Education Practice Theory | Christian Social Welfare | Social Worker |

* 본 연구는 2016학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 공모과제 지원비를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8년 12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1월 10일

수정일자 : 2019년 01월 10일

교신저자 : 이준우, e-mail : knudeaf@kangnam.ac.kr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본 연구는 김덕준(1919-1992)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김덕준은 한국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교육의 선구자였다[1]. 그는 1938년 한국인 최초로 해외(일본)에서 사회사업학을 공부하였다. 1953년 설립된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초대 사회사업학과 학과장과 1957년 창설된 한국사회사업학회 초대 회장, 그리고 1981년 창설된 한국기독교사회복지학회 초대 회장 등 한국의 사회사업, 사회복지 학계에서 여러 개의 '초대'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2].

특히 김덕준이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이하 강남대학교로 지칭) 설립자인 이호빈 목사와 의기투합하여 개설한 사회사업학과는 국내 최초의 단독 학과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사회사업(현재의 용어로는 '사회복지실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사회복지 교육을 실시했다[5]. 그 결과 졸업생들이 사회사업가(현재는 '사회복지사')로서 정부(현재 보건복지부)나 사회복지시설에 고용되어 활동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김덕준의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회

사업 실무자(social work practitioner)들이 배출되었다. 한국 사회복지 교육에 있어서 김덕준의 역할과 영향력은 지대했다[6].

하지만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과 그가 추구했던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에 대한 연구는 그를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형태로, 그가 성취한 사회복지 교육의 업적을 나열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나마 간헐적으로 진행된 것이 전부이다[5-14].³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서 파악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초기 한국 사회복지 교육의 선구자로서의 가치, 강남대학교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복지 교육의 토대를 놓았다는 사실 그리고 기독교 사회복지를 시작하고 정립하였다⁴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김덕준의 제자들이 강의를 통해 배웠던 내용들과 평소 스승을 존경하며 함께 지내면서 경험했던 사건들에 근거하여 서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쉽게도 김덕준이 저술한 책과 논문, 아티클 등과 같은 1차 자료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도출한 그의 사회복지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가 남긴 빛나는 사회복지교육의 성과에 비해 그가 갖고 있었던 사회복지 사상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교육의 실천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미흡했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왜, 지금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가 연구되어야 하는가?”

1 김덕준은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를 한국 최초의 대학과정 독립학과로 만들어 가며 당시 미국 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신입생과 재학생들은 이론 수업은 물론, 외국 원조기관과 현장의 사회사업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던 중 김덕준은 일본에서 함께 공부한 선우배들로부터 1954년 일본사회사업학회의 창립 소식을 전해 듣고 한국에서도 사회사업 학문이 전문 학문으로 인정받으려면 학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957년 한국사회사업학회(현 한국사회복지학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2 한국 사회복지계에 미친 김덕준의 공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0년사 편찬위원회(2017)에서 발간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0년사」, 고 김덕준 교수 10주기 추모집 간행위원회(2003)에서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편찬한 「한국사회복지 제8집 2003 고 김덕준 교수 10주기 추모 및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50주년 기념 특집 “기독교사회복지의 사상과 실천 모델”」, 김범수(2013)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펴낸 「복지저널」 2013년 12월호에 기고한 “부산 피난길에서도 학생모집 사회사업학과를 독립학과로 만들다-김덕준 초대 한국사회사업학회 회장, 후학양성에 매진한 1세대 사회복지학자-”에 개략적으로 기술되어 있다[3][4].

3 김덕준에 대한 연구는 두 차례의 추모 학술세미나를 통한 결과물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고 김덕준 교수 10주기 기념세미나 발표 논문들(2002)과 논문들을 묶어서 인간과복지 출판사에서 출간(2003)한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상과 실천 모델」, 또한 고 김덕준 교수 20주기 추모 심포지엄 자료집(2013)인 “한국의 사회복지를 개척한 강남 사회복지교육”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용한 부성래, 윤기, 이부덕, 시마다 게이이치로(嶋田啓一郎), 이운구의 글은 모두 이 3권의 책자에 있음을 밝힌다[3][6][15].

4 선우남(2003)은 김덕준을 신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회사업을 연구한 인물로 평가하면서 김덕준의 사회복지 교육은 ‘신학적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9]. 함세남(2007)도 김덕준의 사회복지 교육사상은 기독교사회복지 사상을 기본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16].

2.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 및 사회복지 교육의 유효성

한국전쟁 이후 본격화된 한국의 사회복지⁵는 지난 70여 년 동안 커다란 변화를 거듭해 왔다.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서비스의 양적 팽창은 물론이려니와 사회복지 관련 예산도 국가 전체에서 거의 40%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수도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20].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적절한 삶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사회제도이며,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21]. ‘사회복지실천’은 이와 같은 사회복지를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22]. 사회복지학 학문으로 받아들인 195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질적·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사회복지학은 후발 학문으로써 학문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과 “기술”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해 온 바 있다[23][24]. 따라서 전통적으로 연구방법과 통계적 분석, 대인관계 기술을 강조하였다[25].

실제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대상자의 관계는 원조과정의 기반이자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대상자 간 ‘관계’는 사회복지실천이 발전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실천개입의 핵심이자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간주되어왔다[26]. 이러한 측면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 관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대

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문적으로 규정되고 있다[27]. 이렇게 볼 때, 사회복지실천의 핵심은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대상자 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대상자의 일대일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그 인간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어왔다. 따라서 가족,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와 같은 사회적 공동체를 실천의 대상으로 간주해왔다. 이처럼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서로 다른 인간들 간의 만남과 그 관계가 개입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환경과 구조, 다양한 네트워크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 등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사회복지실천의 가장 중요한 책무들임은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과업들의 가장 최소 단위는 역시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도 사람이고, 이를 운용하는 것도 사람이다. 당연히 그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사람이다. 결국은 사람인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복지지는 사람을 양성하고, 그렇게 양성된 사람이 열정과 헌신, 전문적인 능력에 기초하여 일하는 현실의 연속이었다.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사회복지실천가, 즉 사회복지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8].

그러나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급변하는 사회문제 속에서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은 다차원적으로 증대되는 복지수요와 욕구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아울러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대학에서의 사회복지 교육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사회복지 교육 전반에 대한 비판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성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사실 현재의 사회복지 교육은 한국의 대학교육이 처한 구조적 문제점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제도로 인한 교과과정의 경직성 문제⁶를 일반적으로 안고 있다[28]. 현재 사회복지 대학교육은 교육의 질과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사회복지학과의 양적 팽창을 지속시키는 데에 일조해 왔다[18][29]. 최근 들어 이

5 사회복지지는 사회제도다.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원활한 사회적 기능이 유지되게끔 작동하는 사회적 안전망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지는 방대한 영역에 걸쳐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사회복지도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새롭게 확장되어 왔다[17]. 이제 사회복지지는 국가가 국민을 향해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제도로 자리매김 되었다[18]. 사회복지지는 개인을 위한 도움의 차원에서 가족, 집단,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환경을 창출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노력해 왔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인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정책,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의 계획과 수행까지 포함된다[19].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적, 행정적인 상호작용과 체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한복판에 사회복지가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한다.

6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으로 인하여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은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고 학교 간 특성화도 추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현행 1급 사회복지사 시험 제도는 대학교육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러한 양적 팽창의 정도가 조금 주춤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양적으로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⁷

이런 상황은 한국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사들을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듯이 찍어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만약 사회복지사가 소명이 없이 단지 생업을 위한 직업인으로서만 살게 되면 그와 같은 사회복지사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복지실천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그저 그런 공공부조 서비스의 하나로 남게 될 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실천 현장, 사회복지 교육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 ‘지금, 이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기의 본질은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사회복지 교육의 문제에 있으며 그 문제의 근원은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 정신에 대한 확고한 사명이 부재한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업은 오늘날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한국 사회복지 교육이 어떤 본질적

인 가치와 사상 그리고 실천원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다시금 현재의 한국 사회복지 교육이 붙잡고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사회복지와 관련된 김덕준의 생애

1. 김덕준의 생애와 사회복지적인 행적

김덕준은 1919년 12월 29일(음력) 함경북도 회령군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여 1992년 9월 2일 7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김덕준의 생애⁸ 가운데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⁹하면, 우선 일제강점기인 1938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김덕준이 일본 도시사(同志社)대학교 신학과 사회사업학 전공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김덕준이 도시사대학교에서 신학의 테

7 국내 사회복지 교육기관 현황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대학원		평생교육기관	
구분	현황	구분	현황	구분	현황
전문대학	318	일반 대학원	95	평생 교육원	101
원격 (전문)	6	전문 대학원	19	계	101
대학	283	특수 대학원	153		
원격 (대학)	34	계	267		
계	641	합계	908	합계	1,009

2018년 11월 현재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원격대학 등을 포함하여 총 641개 관련 전공 및 학과가 있으며, 대학원을 포함하면 908개, 평생교육기관까지 포함하면 1,009개에 이른다[30]. 이러한 현상은 한국 대학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학과는 대학의 신입생 충원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적절한 교원충원과 교육 시스템의 준비도 없이 정원이 확대되었고, 학과 명칭에 복지를 합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학과로 변용시키는 등, 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김덕준의 주요 생애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1919년 12월 29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김이만(부)과 오귀동(모) 사이에 3남2녀 중 장남으로 출생 / 1933년 4월~1938 3월: 경성공립고등보통학교 졸업 / 1938년 4월~1940년 3월: 일본 동지사대학교 예과 수료 / 1940년: 최옥순과 결혼(슬하에 3녀 1남) / 1940년 4월~1942년 9월: 일본 동지사대학교 문학부 신학과 사회사업학 전공 졸업 / 1945년~1946년: 경성공립중학교 교사 / 1946년~1947년: 의정부 농업학교 교사 / 1947년~1964년: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교수 / 1953년: 이호빈(중앙신학교 창립자)과 사회사업학과 설립, 한국기독교사회사업학생연합회 창립 / 1953~1973년: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서울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 1957년: 한국사회사업학회(현 한국사회복지학회) 창립(초대 회장) / 1958년~1960년: 미국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Florida State University) 유학(1년 반) / 1961년: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학장으로 취임(1962년까지) / 1962년~1973년: 한국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복지위원회 초대 위원장 / 1964년~1969년: 원주대학교(현 상지대학교) 교수 및 학과장 / 1966년: 한국사회사업학교협협의회(현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설립(4대 회장) / 1969년~1977년: 중앙대학교 교수 및 학과장 / 1970년~1971년: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회장 / 1973년: 국제사회복지협의회,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사회계획위원회 위원장 / 1975년: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논문제목: 산업복지에 관한 전문사회사업의 개입에 관한 연구) / 1978년~1981년: 강남사회복지학교(전 중앙신학교, 현 강남대학교) 학장 / 1981년~1982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사 / 1981년: 한국기독교사회복지학회(현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창립, 초대 회장 / 1985년~1992년: 강남대학교 명예교수 / 1992년 9월 6일: 별세

9 김덕준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김덕준이 직접 작성한 이력서와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사회복지연구소(2003)가 발간한 자료집에서 김만두(2003)가 쓴 내용,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0년사 편찬위원회(2017)가 김덕준에 관련하여 작성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2][31].

두리 가운데 사회사업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깊은 기독교적 영성에 기초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실천을 한국에 뿌리내리도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사대학교를 졸업한 후 김덕준은 출생지인 함경북도 회령으로 돌아가 모교인 경성고보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그런데 함경도와 평안도를 비롯한 북쪽이 점점 공산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가족들과 월남을 결심한다. 서울에 온 김덕준은 YMCA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우연 이호빈 목사를 만나 강남대학교 설립과 평신도 지도자 교육과정 교수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2]. 강남대학교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을 설립 이념으로 사회사업을 겸한 초교과적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던 중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부득이하게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부산으로 피난했다. 그러나 부산 피난지에서도 김덕준은 YMCA 활동을 계속하면서 전쟁 이후 발생할 많은 구호대상자들을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1951년 부산일보에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 학생 모집광고를 냈다. 전쟁 이후 한국의 사회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했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김덕준은 1953년 문교부(현 교육부)로부터 사회사업학과 인가(문고증 제1419호)를 받아냈다[8].¹⁰

1957년과 1958년에는 외국인조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현상이 비교적 넓은 편이었으며 학생들은 영어 문서작성이나 회화를 기본으로 학습했다. 때문에 졸업생들도 취업에서 유리한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김덕준은 자신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한계점에 온 것을 직감하였다. 고심 끝에 그는 1958년 9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학교 대학원에 유학을 가게 된다. 1960년 8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김덕준은 1961년부터 1964년까지 강남대학교 학장에 취임했다[2].

한편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제자 원홍목(원주 성애원 설립자)은 1963년 원주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대학인 원주대학교를 설립하였고, 곧바로 김덕준을 초빙했다. 김덕준은 1965년부터 1969년까지 5년간 원주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후 김덕준은 1970년부터 중앙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1977년까지 8년간 근무했다. 중앙대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김덕준은 중앙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1975년 “산업복지에 대한 전문사회사업의 개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덕준은 1947년부터 1963년까지 본인이 젊은 시절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으로 16년간 근무하면서 애환이 깃들었던 강남사회복지학교(중앙신학교라는 교명을 1976년 강남사회복지학교로 개칭하였고, 1989년에 강남대학교로 개칭하였다)에 1978년 복귀하여 학장으로 재직하였으며 건강이 약해져서 62세 조기퇴임을 하였다[2].

2. 강남대학교를 통해 성취된 김덕준의 사회복지 교육 성과

김덕준의 인생 행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창설한 업적과 강남대학교를 통한 사회복지 교육과 연구 등으로 한국의 사회복지 현장을 선도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전신인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와 창설은 창설자인 김덕준이 피난지 부산에서 한국 YMCA 연맹의 협력을 받아 대학과정의 사회사업학과 설립에 전념한 결과였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 신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사회사업학과에 사회사업개론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을 뿐 독립적인 사회사업학과는 어느 대학에도 없었다. 이들 대학에 개설되었던 사회사업개론 역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김덕준 교수가 강의하였다. 그 당시는 6·25 한국전쟁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며 수많은 피난민과 전쟁고아는 물론 빈곤 등으로 사회복지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였다[7].

10 1953년 사회사업학과에 입학한 강만춘(전 강남대학교 교수), 김운초(전 캐나다아동구호재단 한국 지부장), 부성래(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 교수), 최종도(전 보건사회부: 현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국장) 등은 피난 시절 부산 YMCA에서 면접고사를 통해 선발된 1기 학생들이다[8]. 1954년 김만두(전 강남대학교 교수), 김명우(전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김종태(전 홀트일산복지타운 원장), 노상학(전 강남대학교 교수), 손종률(전 유한고등학교 교장·강남대학교 총장), 이윤구(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인제대학교 총장), 조치원(전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총무) 등의 학생들이 입학했다[14].

김덕준은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장관이었던 전 연세대학교 총장 고 백낙준 박사와 의논하여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에 사회사업학과를 설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백낙준 박사가 문교부 장관으로 미국 출장과 업무에 분주한 관계로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어렵게 되어 강남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를 설치하게 되었다. 강남대학교에 한국 최초의 독립적 사회사업학과가 개설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남대학교의 설립이 한국의 YMCA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강남대학교의 창학이념인 '경천애인'의 정신이 사회복지사의 이념과 일치하였기 때문이었다[8].

한편 김덕준은 국내 최초로 사회복지 교육과 실천을 잘 통합하고 이론과 실체를 조화시킨 독창적인 교과과정을 개발하고자 애썼다. 그 결과로 형성된 강남대학교의 혁신적인 사회복지 교육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5][7].

첫째, 철두철미하게 기독교적 교양과목과 사회행동과학의 기초과목을 토대로 강남 사회복지 교육의 이념인 '경천애인'을 생활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양성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에 사회복지사가 체득하도록 교과과정이 설계되었다.

둘째, 사회복지 이념 교육과 아동복지, 청소년 문제, 노인복지, 사회사업시설 운영론 등 다양한 실천 분야의 지식과 실천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개별사회사업(case work), 집단사회사업(group work), 지역사회조직(communitiy organization) 등 전문 교과과목을 개설하였다.

셋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교육의 선구성이다. 이미 1950년대에 당시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던 사회사업의 통합방법론을 소개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생들은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및 지역사회조직론을 통합하는 통합방법론의 정의와 접근방법을 일찍이 접할 수 있었으며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김덕준 교수의 은사인 일본 동지사대학교의 竹内愛二 교수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교육은 국내 최초로 학생

들에게 한국 사회복지 선구자들의 학문적 이념과 철학을 배울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실천에 적용하게 하였다는 데에 커다란 이점¹¹이 있었다.

다섯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교육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는 한국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사회복지학회는 김덕준 교수의 제안과 노력으로 1959년에 창설되었는데 이로써 사회복지를 자선사업적인 활동의 영역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 사회복지로 승화시키기 위한 학문적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여섯째, 한국의 대학교육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하계 및 동계 계절대학의 창설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서구의 합숙대학(residential college)과 열린대학(university without wall)의 장점을 조화시킨 한국 최초의 성인 지도자 교육프로그램¹²이었다. 이렇게 강남대학교가 개설

11 대부분의 한국 사회복지의 선구자들이 강남대학교에서 강의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설립한 하상락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기 훨씬 이전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교에서 석사학위(MSW)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하기 이전뿐만 아니라 귀국 후에도 강남대학교에서 인간발달론과 사회환경론, 개별사회사업을 강의하였다. 강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교수들로 오랫동안 집단사회사업을 강의한 백근칠 교수(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교 MSW), 사회사업행정론과 사회사업개론을 강의하고 보건사회부 차관과 한국뇌성마비장애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김학목 박사(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교 MSW), 지역사회조직론을 강의한 오재경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학과장을 하다 도미한 노창섭 박사 등을 빼놓을 수 없다. 노창섭 박사는 1959년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에서 사회사업 석사학위(MSW)와 사회학 박사학위(Ph.D)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학과장으로 취임하기까지 강남대학교에서 사회사업개론과 사회사업이론, 사회사업실천론을 강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교수들은 초창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교육의 정착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복지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2 지금은 각 대학에서 최고경영자과정 등 성인을 위한 특별교육과정이 많이 개설되어 있으나 1950년대에는 성인교육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때였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사회복지 지도자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 계절대학 참가자는 대부분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로서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를 이끌어가는 최고지도자들이었으며 전국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사회복지교육계 일부에서는 강남대학교의 이 혁신적 계절대학에 대해 한국의 사회복지시설장이나 종사자에게 대학답지 못한 대학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절대학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문제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복지 지도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하였던 계절대학은 당시로서는 사회복지의 현대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일선 사회복지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복지 의식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

III.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 실천원리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은 김덕준이 집필한 저서들과 논문들, 여러 편의 글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김덕준은 자신의 사회복지 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32].

“내가 청소년기 때 부모님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가가와 도요히코다. 그는 일본의 위대한 사회사업가요 기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전부터 그의 책을 즐겨 읽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서 ‘한국의 가가와 도요히코’가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당시 나는 사회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다. 하지만 오늘날 나 자신이 되는 데 있어 가가의 인격과 사상이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김덕준, 1977, pp.26-27).”¹³

가가와 도요히코(Toyohiko Kagawa, 賀川豊彦)는 일본의 개신교 목사, 사회운동가, 교육자이자 세계 최대의 단일 생활협동조합인 ‘코프고베’의 설립자다. 고베 빈민가에서의 헌신적 활동으로도 유명한 그는 우치무라 간조와 더불어 일본을 대표하는 기독교 지성이자 지도자다. 그는 기독교사회주의를 주창했으며 교리적 전도 활

동에만 머물지 않고 일본 최초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보통선거 운동, 무산 계층의 정당 운동, 협동조합운동 등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활발한 사회운동을 선구적으로 개척했다[33]. 이선혜와 정지웅(2010)은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 이념에 기독교적인 관점을 심어준 결정적인 영향이 가가와 도요히코의 ‘사상과 실천 활동’이라고 주장한다[13].

가가와(1922: 83)에게 있어서 종교의 본질은 속죄애(贖罪愛)이며 그 사랑의 표현이 농민조합운동, 협동조합운동, 빈민구제활동, 노동조합운동 등 구체적인 사회복지 사업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는 반드시 자신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는 사회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가가와와는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은 일종의 표상운동이기에 경제생활이나 사회운동을 종교화하고 거기에 종교적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진정한 종교가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가가와와는 종교운동 그것이 바로 사회운동임을 성서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가가와에게 있어서 종교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길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통로였다[34].

실제로 김덕준(1985)은 자신의 사회복지 사상이 성서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가와 도요히코가 추구했던 사회운동의 방향 또한 자신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35]. 더욱이 가가와가 지향했던 종교의 사회운동적인 기능에 주목하면서 복음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사업은 그 본질인 복음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김덕준은 가가와야말로 기독교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힘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동시에 신앙은 행동의 실천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나타내주었다고 보았다. 그것이 야말로 개인의 생명을 살리고 집단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사회동력이었다. 그래서 김덕준은 기독교사회동력을 생명의 본질, 즉 복음과 사회복지사업이 하나가 된 사회발전의 추진력이란 뜻으로 정의하였다[36].

또한 김덕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신” 사역에 주목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3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am reminded of one person who influenced my life greatly at that time other than my parents, his name is TOYOHIKO KAGAWA. He is one of the greatest social workers and Christian leaders in Japan. I liked his books and before my graduation from my high school, I had prayed every morning at my church that may God let me a person like KAKAWA in my country. At that time I did not know exactly what a social worker was. I am convinced that what I am today was greatly influenced by Mr. KAKAWA's personality and his thought.”

의 ‘고치심’을 기독교사회동력의 기원으로 보았다. 김덕준에게 있어서 예수의 ‘고치심’은 복음의 표현 그 자체였으며 이는 개인과 가족, 집단,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봉사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35].

이처럼 김덕준은 ‘사회복지 봉사사업’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쳐주시는’ 행위에서 찾았고,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태가 변화되면서 오늘날의 사회복지가 되었다고 하였다. 김덕준은 구미 사회사업 철학의 배경으로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37].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위적 다음에 위치하면서 자주, 자존, 자유의 인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으며, 삼라만상의 지배를 위임 받은 인간은 자기의 자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여 신인 관계를 파괴했으나 인간의 힘으로는 원상회복을 할 수 없었던 고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화신(化身)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여기서 인간은 원죄의 무서움과 그 원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절대적 사랑을 알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인간은 시간적으로 제한받는 짧은 생을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작업에 자유로 자기결정을 내려서 동참하여 그리스도를 모범하여 속죄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복음을 믿고 실천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여기에 구미 사회사업의 족적(足蹟)의 원천이 있는 것이다(김덕준, 1979, p.94).”

따라서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은 성서에 기초한 기독교적 이념이면서 동시에 그 이념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원리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샬롬의 정신

김덕준이 강남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를 설치한 목적에 대해서 부성래(2003)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8].

“김덕준 교수가 사회사업학과를 설치한 목적은 교회 내부 울타리 속의 신학으로부터 대사회적 교회 외적 신학

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전 사회를 목회의 대상으로 하여 사회 전체가 교회의 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의지가 전체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배웠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 번창하고, 그 생명의 번영에 장애물이 되는 모든 요소 즉, 사회문제를 제거하는 데 있다. … 중략 … 이 말은 이 사회가 샬롬화(Shalom化)해야 한다는 말이다.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샬롬(Shalom)이란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나 ‘개인의 내적 영혼의 화평’으로 알고 있으나 성서적 해석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공생과 안녕을 의미한다. … 중략 … 김덕준 교수의 사회사업교육의 이념은 이와 같이 깨어진 샬롬(Shalom)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부성래, 2003, pp.24-25).”

김덕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회구조 속에서 희생될 수 있는 자, 즉 가난한 자, 잡힌 자, 눈먼 자, 소외된 자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가 공생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36]. 이는 이 사회가 샬롬(Shalom) 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덕준이 주장한 성서적 해석에 따르면 샬롬(Shalom)은 공동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공생과 안녕을 의미하였다. 김덕준(1987)은 이와 같은 샬롬을 진정한 복지의 상태로 보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고 조화된 공생의 터전 속에서 공동의 복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복지(Welfare) 즉 샬롬(Shalom)에서 멀리 떨어져나가 동서남북으로, 종교적 교파주의로, 집단 이기주의로, 빈부의 차로, 강약의 불균형으로 나누어 버렸다[38].

김덕준의 사회복지 교육의 이념은 이상의 예와 같이 ‘깨어진 샬롬(Broken Shalom)’의 회복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광범위하게 펼쳐진 제반 사회문제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공생의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노력에 동참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김덕준(1987)에게 있어서 샬롬(Shalom) 즉, 복지란 개별성과 집합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다[38]. 샬롬은 개인에게도 실현되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 가족, 국민과 국민 사이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샬롬이 있을 때 그 사회는 공생의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며 국가공동체 혹

은 국제사회공동체가 인류의 복리를 위하여 전 인간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당연히 삶은 개인에게도 삶의 풍요로움과 신체적 건강과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김덕준(1956)은 전문 사회사업의 중요한 사명도 모든 인간의 복리 향상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원조하는데 있다고 했다. 특히 빈곤에 처해있는 사람이나 억압당하고 소외된 사람 그리고 상처받기 쉬운 약자에게 힘과 권한을 얻게 하는 것이 전문 사회사업이라고 보았다[39].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제도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간의 간격을 크게 하게 하므로 자본주의제도는 국민을 위협과 불안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온갖 위협과 불안에서 국민의 생명과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전문 사회사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요건이라 할 것이다. ... 중략 ... 사회보장제도를 포괄하는 광범위하고도 민주적인 사회정책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어느 나라에서나 전문 사회사업은 자본주의제도가 내포하고 있었던 문제에서 오는 해악들을 부분적으로나 임시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눈부신 역할을 하여왔던 것이다(김덕준, 1956, p.3).”

“인간은 어느 누구나 자기 혼자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어떠한 사회적 집단과 일과 이웃, 지역사회, 조합, 교회와 같은 것에 속하여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한 사람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모두다 공생 운영하여 함께 살아가야만 곧 자기가 속하여 있는 집단과 동일하게 생활에 만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회사업은 개인적 생활에 성공적 영향을 끼치도록 하여야 한다. 고로 그 개인의 힘을 토대로 하여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 모두와도 공생하게 되는 것이다(김덕준, 1956, p.9).”

이렇게 김덕준에게 있어서 사회복지실천은 인간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역동적 요소가 만들어낸 인간생활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전문적인 노력이고, 동시에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사회적 기능을 어느 정도의 효과적인 선까지 높여줄 수 있는 응용사회과학적 방안이었다. 그리고 이

는 삶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실천접근이었다 [39][40].

아울러 김덕준이 궁극적으로 꿈꾸었던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 교육의 기본적 개념은 인간 내면세계의 변화와 동시에 모든 인류의 복지와 번영이 보장되는 “공생적 사회”, “공생적 공동체”의 건설과 성취를 위한 것이었다[38][41-46]. 그래서 김덕준에게 있어서 사회복지 교육이란 인간이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응답해야 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하나님의 활동이었다[37][47-50]. 정치사회적 억압과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 안는 참된 사회복지 교육을 실현하는 작업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사업 즉, 사회복지실천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김덕준이 제시했던 사회복지실천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일이었으며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길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39][51][52]. 여기에서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대상자로 하여금 참된 ‘자기’ 바로 진정한 ‘자아’를 찾게 해 주는 실천가여야 했다. 억압과 차별에 종속된 ‘자아’가 아닌 참된 ‘자아’를 찾아주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였던 것이다.

“사회사업가는 피조자의 참된 자기를 발견하도록 해야 하며, 피조자 자신 스스로가 참된 자기를 발견하고 참된 자기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한다(김덕준, 1956, p.171).”

부연하면 김덕준이 지향했던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가 ‘피조자, 즉 서비스대상자’의 참된 ‘자아’를 찾도록 돕는 활동인 것이다[53-58]. 그리고 이는 사회복지사도 자신의 참된 ‘자아’를 이미 찾은 존재여야 함을 전제한다. 김덕준은 사회복지사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32][38][50].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육화시키면 예수를 닮을 것이며, 예수를 닮은 사회복지사는 예수님을 닮은 참된 ‘자기’를 나타냄으로써 서비스대상자를 힘껏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성숙한 참된 ‘자기’를 갖추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물과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됨으로 이는 고스란히 서비스대상자

가 자신의 참된 ‘자기’를 찾아가도록 돕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2. 인간의 존엄성

김덕준이 일생동안 추구했던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실천의 정신과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기초하였다. 김덕준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인간관에 의해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지고한 목적과 잠재력을 가진 존엄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다음에 위치하는 존엄성과 절대적인 자유를 그에게 부여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절대에 가까운 존엄성과 자유를 지닌 인간 이것이 기독교 인간관이다. 이 인간관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속죄 받았으니 그는 일생 동안 그 속죄의 대가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랑의 빛을 갠어나간다. 이 삶이 즉 기독교 인생관이다 (김덕준, 1985, p.8).”

이와 같은 인간관에 근거한 김덕준의 사회복지 교육은 모든 인간의 새로운 인간성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함으로써 가난과 억압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 평등 사회를 도래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게끔 하였다[38][59][60]. 즉, 김덕준은 참된 사회복지 교육을 모든 인간이 억압과 착취, 박해 등에서 해방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날마다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가를 창출해 내는 것으로 보았다.

“기독교의 인간관은 기독교의 본질에 근원을 둔다. 기독교의 본질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위격 다음에 위치하면서 자주, 자존, 자유의 인간, 그러므로 존엄성을 지닌 인간, 삼라만상의 지배를 위탁받은 인간은 자기의 자유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여 신인관계를 파괴했으나 인간의 힘으로는 원상회복할 수 없었으므로 그래도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화신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여기서 인간은 원죄의 무서움

과 그 원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절대적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시간적으로 제한받는 짧은 생을 이 땅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작업에 자유로 자기결정을 내려서 동참하여 그리스도를 모범하여 속죄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복음을 믿고 실천한다. ... 중략 ... 구미의 사회사업의 역사는 그 철학을 벗어나서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철학은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인간관을 벗어나서 이해할 수 없다 (김덕준, 1982, pp.24-25).”

김덕준은 사회복지 교육의 목적을 인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문 사회사업가를 양성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39]. 이와 같은 그의 견해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으로 하여금 본연의 창조적 질서로 복귀하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개입과 거듭난 인간의 성화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신앙적 구원의 확신과 그에 따른 삶의 결실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교육의 목표도 인간성 계발의 초점을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체계에서 머물지 않고 형이상학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삶의 근본목적의 의식화하게 함으로써 자아정체성의 확립이 보다 통합적이고 고차원적이 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48][49][60].

3. 십자가 사랑

김덕준은 세로와 가로의 개념을 독창적으로 제안하면서 이를 십자가 사랑으로 연결시켜 기독교와 사회사업을 설명하였다[40][49]. 세로는 동양적인 개념으로서 유교의 영향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가족 가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그에 반해 가로는 서양의 개념으로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까닭에 세로 사랑은 가족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행위이다. 하지만 가로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실천하는 행위이기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의 형틀을 상징하는 것보다도 창조된 인간 가족부터 바로 이 시간까지 대대손손 면면하게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절대적인 세로의 사랑을 가로로 승화하여 세로와 가로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사랑을 창조하셨는데 그 역사적 위대성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와 같이 위대한 의미를 지닌 십자가의 사랑이 초대교회에 이어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구라파와 미주에 이어져 기독교 사회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해 하였으며 끝내는 100년 전에 복음 선교와 함께 거의 동시적으로 선교 사업으로 전달되었다. 세로의 사랑에서 가로의 사랑으로 옮기는 데는 희생이 따른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가 그것을 여지없이 상징한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이와 같은 아픔과 마찰과 투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김덕준, 1985, p.19).”

이렇게 김덕준에 의한 십자가의 의미는 “세로와 가로의 사랑”이며 특히 세로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가로의 사랑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사가 가로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의 실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더욱이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는 현재 한국 사회복지 교육의 근본적 변혁을 위해 상당히 유용한 접근으로 고려할 만한 통찰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실천을 단지 ‘유용한 방법’이 수단’으로 인식하려는 왜곡된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끔 도와줄 수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조차도 점차 성과와 편익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어가는 현실에서 ‘한 인간에 대한 소중성’을 담보로 하는 우선적인 서비스실천개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 즉 진정한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대상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어떤 합리적 타당성이나 사회적 효용을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심과 같이 무조건 서비스대상자를 돌보며 지원해야 하는 활동[61][62]임을 인식하게 도울 것이다.

4. 사회정의

김덕준에게 있어서 사회정의를 정립하는 일은 사회

복지가 실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였고 이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반드시 달성하라고 명령하신 사명이기도 했다[37][40][47][63-69]. 심지어 김덕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 임해야 인류의 구원과 창조의 질서회복을 완성할 수 있다는 선교적인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은 그러므로 사회복지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38].

그래서 김덕준은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의 근간에는 사회정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36][38][41][52][69]. 그에게 있어서 사회정의 사상은 구약시대에서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질 만능주의, 경제사회의 빈부격차, 지배자들의 권력구조의 부조리에 대한 쇄신과 피해자(약자와 빈민)들에 대한 인권의 옹호를 그 기본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힘차게 흐르는 강물과 같은 정의로 가득 찬 민중의 회열의 소리이며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의 예언자로서까지 인식될 수 있는 민중들에게서 사회적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신약 시대의 예수는 바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 이사가 외쳤던 사회정의를 실현키 위해 인간의 구세주로 온 자신을 복음의 진리로 선포하였다고 김덕준은 다음과 같은 성서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밝혔다[36][38].

“...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묵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자들은 보게 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이사야 58: 6, 눅 4: 18-19).”

5. 경천애인(敬天愛人)

강남대학교의 설립자인 이호빈 목사와 김덕준은 경천애인을 대학교육의 이념이며 목표로 삼았다. 동시에 경천애인은 이호빈과 김덕준의 인생 비전이었으며 김덕준에게 있어서는 사회복지 교육의 구체적인 교과과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했다[11]. 이호빈과 김덕준은 한국의 교파적 분열을 염려했으며, 교조적 기독교의 신학을 우려했다. 신학교였지만 교육 목표는

들에 박힌 교회 목사의 양성과 배출이 아니었다. 그들은 평범한 회사원으로부터 상인, 교사, 사회사업가(현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군인, 목수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평신도들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독교인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목표는 모든 교파의 청장년들을 교육시켜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권속이라는 공동 유대를 가지고 각 교단 간의 상호 이해를 통해서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 참 경천애인인 그리스도 속에서의 우애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특히 김덕준은 이러한 신념이 한국 문화의 맥락 속에서 뿌리내려져야 하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적 유산 속에서 자양분을 섭취하면서 자랄 수 있다고 믿었다[37][47][52][60][70]. 그것은 보편적 기독교 신앙과 한국의 문화유산, 그리고 현재의 생활경험을 통합하고 조화시킴으로써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에 토대를 둔 신념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신앙적 신념 속에서 전문 사회사업을 통해 실천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사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사업학과와 창설은 경천애인의 사상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다[7][8].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는 1953년에 한국에서 제일 먼저 순수한 현대적 전문사회사업교육의 커리큘럼을 구성한 사회사업학과로 대학인가를 받아 창설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이 전문사회사업가로서 정부(보건복지부)나 사회복지기관에 고용되어 활동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언제나 한국에서 제일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사회사업실무자(social work practitioner)를 배출시킨 데 대한 긍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회사업학과와 커리큘럼은 중앙신학교의 창학이념 및 교육목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졸업 후 기독교 사회사업가로서의 가치와 사명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명은 전문직업(vocation)으로서의 전문사회사업의 가치와 하나님에게 부름 받았다(calling)는 신앙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부성래, 2002, pp.2-3).”

이와 같은 경천애인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

육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교육의 진정성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천애인의 정신은 강남대학교에서 양성된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부름 받은 나선 사명’을 받은 실천가가 되게끔 했다[7].

“스승이신 고 김덕준 교수님의 경천애인의 가르침과 그가 조성해 주신 사회복지교육 환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알게 하고 건전한 사고방식과 건전한 판단능력을 키워주셨으며 우리 자신들의 identity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웃에 대한 나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 중략 ... 고 이호빈 목사님과 고 김우현 목사님(이호빈 목사님을 도왔던 중앙신학교 설립자의 한 사람)의 실천을 요구하는 설교와 신앙적 분위기는 우리들을 항상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사회사업과 신학의 접목이 우리들로 하여금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의 identity를 정립하게 하였고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 학생으로서의 특유의 자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 중략 ...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의 정신으로 무장한 우리들은 전쟁 직후의 수복한 서울 거리의 혼란과 가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부성래, 2002, p.13).”

나아가 경천애인의 정신은 확고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김덕준이 이해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경천애인의 정신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회복지지는 부르심을 향하여 나서는 하나의 소명이었다. 일반적으로 목회나 선교와 같은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회복지도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6. 이웃 사랑의 관계성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도덕률은 성서의 기본정신이지만 특히 예수의 교훈 가운데 핵심이 되고 있다. 김덕준은 ‘가로 사랑’의 실천으로 사회사업에 예수의 섬기는 사역에서 출발될 수 있도록 그 실천가들의 양성에 자신의 생애를 바쳤다[35].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할 수 있다. 사회사업도 이웃의 아픔과 고통, 가난과 굶주림, 고독과 소외, 압박과 인권유린, 버림과 의

면 등 많은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서 인간이 자유로움과 사람의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소명을 갖게 되며 이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요하는 것이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예수의 이웃사랑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실례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 설명하였다[8].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 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주었다.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두 테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하며 부탁하고 떠났다(눅 10: 30-36).”

김덕준은 빈부격차의 심화가 외면되고, 기술과잉의 존으로 인한 인간존엄성의 격하 현상 등 세속적 다수주의의 위세로 양심의 벽이 무너지고 있는 위기에 직면한 현대사회에서 이웃 사랑의 패러다임이 요긴하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했다[62].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노력이 크게 요구된다[16][71]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은 도덕적인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바른 생활 태도, 건실한 행동의 단계를 모범으로 실행하면서 개인, 단체 및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위한 헌신적 용감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김덕준에게 있어서 이러한 용기는 사실상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 기독교 신앙이 그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었으며, 김덕준은 이러한 실천적 신앙에 의해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역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사업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실천적 사역인 사회사업 현장과 접목시키는 작업이 사회복지 교육이라고 하였다[35].

김덕준의 경우 실제로 예수의 구속사업의 핵심도 바

로 이완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을 통하여 자기중심적인 탈 이웃 관계를 사랑의 대상관계로 승화시키는 패러다임을 제시하신 데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진정한 사회사업의 관계론적 패러다임도 예수 그리스도가 본으로 보여준 사랑의 실천을 그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38]. 시대와 제도와 대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된 귀중한 존재로 본 이웃들, 가난과 질병과 저버림과 억압된 자들, 어린 아이들, 여인들, 이방인들을 가리지 않고 사랑과 용서와 치유와 인정이 필요한 그 누구에게도 온정과 확신과 회복을 갖도록 대하신 관계적 정의 규범을 예수가 확립해 주셨기에 이를 원칙으로 관계성의 계발을 사회복지 교육의 중심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김덕준의 생애와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적 그리고 그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를 살펴보았다. 그가 남긴 빛나는 업적들과 사회복지 교육의 성과들을 비롯하여 주옥같은 그의 저작물(저서, 논문, 기타 다양한 형태의 글들)들을 심도 있게 탐구함으로써 그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를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는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적이며 이념적인 사회복지사 양성의 본질적인 목적과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통찰들을 제시해 주었다.

첫째,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의 핵심은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사회정의를 ‘경천애인’하는 자세로 이 세상에 구현하고자 하는 살롬의 정신이었다. 김덕준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과업은 부서지고 깨어진 살롬의 상태를 개인과 가족, 집단, 사회 나아가 전 세계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김덕준의 살롬의 정신은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에 반드

시 필요한 가치로 적용되어야 한다. 한덕연(2016)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핵심은 “사람을 사람답게, 사회를 사회답게”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각 사람이 주체화되어야 하고, 사회가 사회다워지려고 하면 사회가 상부상조의 공생적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복지에는 예산과 규모의 급성장에 비해 서비스대상자의 주체적·자립적 삶을 실현해내는 데에는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18]. 서비스대상자는 시혜적 존재로 고착되는 일이 빈번해보이고,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가 다반사인 현실이다[72].

둘째, 김덕준에 의하면 살림의 회복을 주도적으로 성취해 나가야 할 실천가가 바로 사회복지사였고, 사회복지사는 살림의 정신으로 사회복지를 사람과 세상을 향해 실천해야만 하는 전문가였다. 특히 김덕준에게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신앙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사는 실천가였다. 서비스대상자 위에 군림하거나 전문가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서비스 개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대상자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살림의 회복을 구원하는 실천가였다. 더욱이 서비스대상자의 삶에서 살림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실천가는 서비스대상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했다. 이는 오늘날 사회복지실천 윤리에서 강조하는 서비스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원칙과도 연결된다[73][74].

셋째, 김덕준에게 있어서 사회복지실천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붙들고 고뇌하며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동력, 즉 사회운동이었다. 이는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에서 가장 간과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사회행동에 대한 자기반성적 성찰을 하게끔 한다. 사회복지 교육에서 사회행동 내지 사회운동과 같은 급진적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교과내용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김덕준이 추구했던 사회동력, 즉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자각하는 의식이 사회화할 때 발휘되는 사회운동의 힘이야말로 다시금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핵심과업인 것이다.

넷째, 김덕준의 사회복지실천은 세상의 중심에서 서비스대상자들의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이웃 사랑의 패러다임을 널리 확산시킴으로 각각의 사람들을 주체자로 세우고 지역사회를 공생적 관계로 만들어가는 소명을 실행하는 활동이었다. 사회복지를 사회제도로만 보고, 그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기능적이고 방법론적인 접근이 보편화되고, 그런 와중에 정작 존중받고 스스로 변화해야 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되는 서비스대상자의 주체성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김덕준의 사회복지실천이 오늘 이 시점에서든 유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상과 같은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를 현재의 한국 사회복지 교육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사의 정의와 자세, 역할,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모든 사회적 억압이나 차별을 막고 제거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요구하는 자원, 서비스,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회와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활동해야 하며,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통 받는 집단과 개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상태를 향상시키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입법, 정책의 변화를 옹호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자세이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대상자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정해야 하며 특히 서비스대상자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 결과 서비스대상자와 그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을 능력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대상자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각 혹은 가치관의 변화는 새로운 선택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고 더 많은 변화가 가능하도록 해 준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대상자가 새로운 선택과 변화를 꾀

할 수 있는 관점의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서비스대상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한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이 선호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인식의 변화를 촉진해 주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기능이다.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실천 업무의 기능은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통해 나타난다. 사회복지사의 개입은 서비스대상자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어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실천개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떤 기술이나 사실을 가르치거나 교정하는 직접적인 개입에만 주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비스대상자의 힘과 선택의 기회를 증진하는 상호 교류와 상호 존중, 상호 배려 등을 유지해 가는 것에 있다. 아울러 서비스대상자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 삶의 내용과 이야기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진정한 변화를 창출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회복지 교육의 모델과 교과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본 연구가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 전반을 사회복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후속 연구에 관심을 촉발하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1]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 공동체, 2007.
-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0년사*,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 [3] 고 김덕준 교수 10주기 추모집 간행위원회, *한국사회복지 제8집 2003 고 김덕준 교수 10주기 추모 및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50주년 기념 특집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상과 실천모델* 인간과복지, 2003.
- [4] 김범수, “부산 피난길에서도 학생모집 사회사업 학과를 독립학과로 만들다-김덕준 초대 한국사회사업학회 회장, 후학 양성에 매진한 1세대 사회복지학자,” 복지저널, 제12호, pp.72-73, 2013.
- [5]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50년사 편찬위원회,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50년사(1953-2003)*,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3.
- [6] 강남사회복지교육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한국의 사회복지를 개척한 강남 사회복지교육*, 강남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2013.
- [7] 부성래, “故 김덕준 교수의 韓國 社會福祉 教育과 實踐에 미친 영향,” 고 김덕준 교수 10주기 추모 행사준비위원회(편), 고 김덕준 교수의 한국 사회복지 교육과 실천에 미친 영향, pp.1-22, 2002.
- [8] 부성래, “故 김덕준 교수의 한국 사회복지 교육과 실천에 미친 영향,” 고 김덕준 교수 10주기 추모집 간행위원회(편),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상과 실천모델, 인간과복지, pp.20-43, 2003.
- [9] 선우남, “김덕준 목사님을 생각하며,” 고 김덕준 교수 10주기 추모집 간행위원회(편),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상과 실천모델, 인간과복지, pp.18-19, 2003.
- [10] 윤 기, “소공 김덕준 선생을 기리며,” 고 김덕준 교수 10주기 추모집 간행위원회(편),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상과 실천모델, pp.11-15, 인간과복지, 2003.
- [11] 이부덕, “기독교사회사업의 사상과 철학,” 고 김덕준 교수 10주기 추모집 간행위원회(편),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상과 실천모델, pp.133-170, 인간과복지, 2003.
- [12] 嶋田啓一郎, “기독교와 사회복지가 만나는 점(接点): 기독교사회복지의 성립을 위하여,” 고 김덕준 교수 10주기 추모집 간행위원회(편),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상과 실천모델, 인간과복지, pp.79-102, 2003.
- [13] 이선훈, 정지용, “가가와 도요히코와 한국의 관련성에 관한 고찰: 한국 사회복지교육의 선구자, 김덕준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회사회사업, 제 13호, pp.155-178, 2010.
- [14] 이윤구, “한국 사회복지 중흥 여명기와 전문가 교육의 개척자 김덕준 교수,” 강남사회복지교육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편), *한국의 사회복지를 개척한 강남 사회복지교육*, 강남대학교 한국

- 사회복지연구소, pp.21-30, 2013.
- [15] 고 김덕준 교수 10주기 추모행사준비위원회, 고 김덕준 교수의 한국 사회복지 교육과 실천에 미친 영향, 강남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2002.
- [16] 함세남, “강남대학의 사회복지교육과 지역사회복지실천,”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강남대학교 한국 사회복지연구소(편), 강남대학교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5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자료집, pp.11-29, 2007.
- [17] 이준우, *복지경영 입문, 파란마음*, 2015.
- [18] 최성균, 이준우, *한국 사회복지 실천과 복지경영, 파란마음*, 2017.
- [19] 이준우, *복지선교와 복지목회*, 나남, 2014.
- [20]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2018.11.1.
- [21] 백인립,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21세기 한국사회와 사회복지의 역할,”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36권, pp.297-332, 2013.
- [22] 이준우,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파란마음*, 2011.
- [23] A. Rubin and E. R. Babbie,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Cengage Learning, 2008.
- [24] C. Zastrow, *Empowerment series: introduction to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Cengage Learning, 2013.
- [25] 최재성, 정세정, 조자영,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최근 10년간 연구경향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제68권, 제1호, pp.73-94, 2016.
- [26] N. Coady, *The worker-client relationship revisited*,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Vol.32, pp.291-298, 1993.
- [27] 최명민, “사회복지실천을 둘러싼 전문가-이용자 관계의 진근대적 측면과 대안적 실천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21-49, 2011.
- [28] 진재문, “사회복지정책 교육의 진단 및 개선 과제,” 비판사회정책, 제42호, pp.212-248, 2014.
- [29] 김통원, 윤제영, *한국 사회복지교육 인증기준 및 매뉴얼 개발연구 최종보고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1.
- [30] <http://lic.welfare.net/lic/ViewLicEduOrganInfo>, 2018.11.1.
- [31] 김만두, “한국 기독교사회복지의 역사적 조명,” 고 김덕준 교수 10주기 추모집 간행위원회(편),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상과 실천모델, 인간과복지, pp.171-206, 2003.
- [32] 김덕준, “My Adolescence,” 사회복지연구, 제11호, pp.21-28, 1977.
- [33] S. Robert, *Toyohiko Kagawa : apostle of Love and social justice*, 서정민, 홍이표 역, 신앙과 지성사, 2018.
- [34] 竹中正夫, 賀川豊彦における基督教倫理. 同志社大學人文科學研究紀要, Vol.3, 127-144, 1960.
- [35] 김덕준, “재해 구호사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 제85호, pp.74-101, 1985.
- [36] 김덕준, *기독교사회복지: 사상, 역사, 운동*, 한국기독교사회복지학회, 1985.
- [37] 김덕준, “구미사회사업 철학의 배경에 대한 시고: 기독교의 본질을 중심으로,” 사회사업학회지, 제1호, pp.87-96, 1979.
- [38] 김덕준, *수정판 기독교사회복지: 사상, 역사, 운동*, 한국기독교사회복지학회, 1987.
- [39] 김덕준, *사회사업의 기술*, 애린사, 1956.
- [40] 김덕준, “세로의 사랑 가로 사랑,” 기독교사회복지, 제3호, pp.13-22, 1985.
- [41] 김덕준, “사회사업사의 단계설과 사회보장제도,” 중신학보, 창간호, 1955.
- [42] 김덕준, “한국 사회사업 교육의 현황과 전망,” 사회복지, 제13호, pp.12-26, 1965.
- [43] 김덕준, “사회사업교육의 방향,” 사회복지, 제19호, pp.32-49, 1967.
- [44] 김덕준, “인권의 향유와 실천면에서의 사회복지: 국제사회복지사업협의회 코미슨 토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제23호, pp.40-47, 1968.
- [45] 김덕준, “한국사회사업의 철학적 시고,” 복지연구, 제1호, pp.4-30, 1968.
- [46] 김덕준, *현대사회사업의 기본원리와 방향: 사회사업가 대회보고서: 국가발전과 사회사업가의 역, 국립사회사업지도자 훈련원*, pp.43-69, 1969.

[47] 김덕준, “사회정책의 개념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 시고,” 사회사업학회지, 제2호, pp.17-38, 1980.

[48] 김덕준, “기독교회와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 제75호, pp.23-47, 1982.

[49] 김덕준, “기독교와 사회사업의 접선: 그 역사적 배경과 한국적 상황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0권, pp.169-189, 1983.

[50] 김덕준, “없어서 안 될 것은 단 하나,” 기독교사회복지, 제2호, pp.45-54, 1984.

[51] 김덕준, “도시발전에 있어서의 시민참여의 극대화,” 사회복지, 제17호, pp.19-27, 1967.

[52] 김덕준, *전문사회사업과 산업복지*, 강남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5.

[53] 김덕준, *미국 공동모금의 역사적 발전과 그것에 대한 시비*, 동광, 1961.

[54] 김덕준, “사회복지연합기구의 조직강화문제,” 사회복지, 제18권, pp.17-28, 1967.

[55] 김덕준, “영아원 존립에 대한 고찰,” 사회복지, 제21호, pp.10-26, 1968.

[56] 김덕준, “사회복지 장기 계획과 인력수급 지침에 관한 소고,” 복지연구, 제4호, pp.27-49, 1969.

[57] 김덕준, “1960년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1970년대의 그 전문성의 방향,” 사회복지, 제30호, pp.39-51, 1970.

[58] 김덕준, *산업복지에 관한 전문사회사업의 개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5.

[59] 김덕준, “사회복지의 개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 제4권, pp.4-30, 1976.

[60] 김덕준, “권두언,” 기독교사회복지, 제1호, pp.5-6, 1983.

[61] 김덕준, “의료사회사업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0호, pp.1-20, 1976.

[62] 김덕준,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재원확보 방안: 공동모금의 가능성,” 사회복지, 제65호, pp.7-40, 1980.

[63] 김덕준, “사회복지와 공동기금: 외국의 공동기금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제10권, 제2호, pp.25-42, 1971.

[64] 김덕준, “집단력학론(I),” 사회복지연구, 제5호,

pp.3-36, 1971.

[65] 김덕준, “집단력학론(II),” 사회복지연구, 제6호, pp.21-34, 1972.

[66] 김덕준, “한국의 사회복지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 제20권, 제2호, pp.10-26, 1972.

[67] 김덕준, “한국의 사회복지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연구, 제7호, pp.5-22, 1973.

[68] 김덕준, “가족계획에 있어서의 사회사업참여의 필요성,” 가족계획에 의한 사회사업교육 세미나 종합보고, IASSW의 가족계획 교육시범대학(서울대·이대·중앙대), 1-32, 1973.

[69] 김덕준, “산업복지: 그 발생적 배경과 개념연구,” 사회복지, 제56호, pp.5-16, 1978.

[70] 김덕준, “기독교와 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 제1호, pp.7-19, 1983

[71] 김덕준 외, *신사회사업개론*, 강남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0.

[72] 한덕연, *복지요결*, 2016.

[73] 전오진, 박선화, 박현식, “사회복지사의 윤리 요인 인식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5권, 제8호, pp.236-257, 2015.

[74] 이준우 외, *전문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용어사전*, 서현사, 2011.

저 자 소 개

이 준 우(Jun-Woo Lee)

정회원



- 1991년 2월 : 총신대학교 종교교육과(문학사)
- 1997년 2월 : 송실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 2003년 8월 : 송실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
- 2017년 5월 : 미국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목회학 박사)
- 2005년 9월 ~ 현재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수어통역, 교회 사회복지실천